

서울 신산업집적지 발전의 두 유형: 동대문시장과 서울벤처벨리의 산업집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화 특성에 대한 비교*

남 기 범**

요약 :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도시경제변화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산업과 이의 집적논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현대의 기업은 비용과 위험감소를 위해, 비시장적 기제들 즉, 신뢰, 협력, 상호의존 등의 사회경제적 기제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거래비용의 감소보다는 산업활동의 네트워크, 착근성, 도시의 장소적, 역사적 발전특성 등의 문화경제적 기제에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내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두 개의 산업 클러스터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형성의 특성과 국지적 공간경제와 산업의 차이에 따른 제도화의 특성들을 분석한다. 즉,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에서 출발하여 '생산-유통-판매-사후 서비스'가 하나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대문의류산업 집적지와 10여 년의 짧은 사무업무활동지구에서 IT중심의 벤처산업지구로 변모한 서울벤처벨리의 내적 발전특성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사회경제기제와 문화경제기제로 나누어 비교하고 서울의 공간경제 발전에의 함의점을 도출한다.

주요어 : 신산업집적지, 동대문시장, 서울벤처벨리, 사회적 자본, 제도화

1. 서 론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도시경제변화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산업과 이의 집적논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현대의 기업은 비용과 위험감소를 위해, 비시장(非市場)적 기제들, 즉 신뢰, 협력, 상호의존 등의 '사회경제적 기제(socio-

economic mechanism)'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Asheim and Isaksen, 2002; Rabellotti and Schmitz, 1999; Thrift, 2000), 명시적인 거래비용의 감소보다는 산업활동의 네트워크, 착근성, 도시의 장소적, 역사적 발전특성 등의 '문화경제적 기제(cultural economic mechanism)'에 영향을 받는다(Doeringer and Terkla, 1995; Porter, 1998a; Scott, 2000; Simmie et al., 2002; Smith, 2001). 따라서 기존의 몰개성적이고 공간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C00661)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부교수

속성을 무시한 첨단산업 위주의 도시산업 발전전략도 수정이 가해지고 있으며, 도시의 공간경제 성장에 중요한 산업 클러스터의 다양한 유형과 발전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권오혁, 2002; 복득규, 2003; Gertler, 2003; Gordon and McCann, 2000; Markusen, 1996; Martin and Sunley, 2003; Park, 1996; Park and Markusen, 1995; Van Klink and De Langen, 2000). 나아가 갈수록 서비스활동과 제조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첨단·지식산업분야가 업종의 개념에서 수행력의 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발전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자본과 문화경제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Cohen and Fields, 1999; Lee et al., 2000 참조).

또한 급속히 재편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서울의 역할과 그 공간경제의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기제의 역할강화 등의 추세 속에서 세계경제의 주요 동인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도시와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orter, 1996; 1998b; 2001). 더욱이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선 현대의 기업활동과 산업체제에서는 기업이 입지한 도시의 경쟁력, 즉 도시산업창출의 경쟁과 협력,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남기범, 2001; Altengurg and Meyer-Stamer, 1999; Cooke, 2001). 서울의 공간경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는 국토공간상에서 공간분업과 사회적 분업으로 성장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분업체제에 편입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고부가가치의 도시형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밀집된 소비인구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소비자지향형

산업집적지와 IT산업중심의 첨단고부가가치 지향형 산업집적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지구들이 성장하고 있다. 중급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소비재중심의 동대문 의류산업집적지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서울벤처밸리의 집적지형성논리와 사회적 자본의 특성, 기업 간 수평·수직적인 네트워크형성의 제도적 특성과 관습의 정착에는 상당한 유사성과 더불어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 이 두 지역이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역동적인 산업집적지이고 이들을 벤치마킹하는 산업공간이 속속 증가하면서, 성공보다는 실패의 사례가 더 많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 지구의 내적 특성과 유형화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김광선, 2000; 김양희·신용남, 2000; 남기범, 2002; 이덕희, 2000; 장승권, 2001; 진양교, 2001; 황주성, 2000, Nahm, 2001).

정치학과 사회학분야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주로 공동체의 발전과 통합의 원천으로서 인식되어 온 사회적 자본에 대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조작적 정의와 개념의 확장, 즉, '국지적 산업집적지 내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의 원천이 되는 사회제도간의 생산적 상호작용'(Cohen and Fields, 1999)이라는 개념적 조작과 구성요소의 구체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공간경제의 분석에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¹⁾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내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두 개의 산업 클러스터 비교연구를 통해, 산업집적의 유형, 사회적 자본형성의 특성, 국지적 공간경제와 산업의 차이에 따른 제도화의 특성들을 분석한다. 즉,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에서 출발하여 '생산-유통-판매-사후 서비스'가 하나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

대문 의류산업집적지와 20여 년의 짧은 사무업무 활동지구역사에서 IT중심의 벤처산업지구로 변모한 서울벤처벨리의 내적 발전특성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사회경제기제와 문화경제기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서울의 공간경제 발전에의 함의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서울처럼 도시생성의 역사가 오래되고 후발 자본주의 도시로서 경제부문의 중층성이 존재하는 대도시내에서는 여러 형태의 산업 클러스터가 존재할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발전과 도시공간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다양성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클러스터와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

정치·사회학 분야에서 논의가 시작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커뮤니티 발전과 통합의 근원, 그리고 확장된 의미로 성숙된 사회(mature society)를 위한 성장기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다. 즉,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감시능력, 기회행동에 대한 처벌, 협력적 행위에 대한 혜택 등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박찬웅, 2000; Coleman, 1988).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나 지역은 윤리적 자산과 시민의 참여,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 사회를 의미하며, 공통의 신뢰와 암묵적 규범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Granovetter, 1985; Sandefur

and Laumann, 1998).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사회적 신뢰를 새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주장하면서, 동서양의 각 사회를 저신뢰 사회(low trust society)와 고신뢰 사회(high trust society)로 구분하고 한국, 중국, 이태리는 저신뢰 사회의 예로, 일본, 독일, 미국은 고신뢰 사회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강한 가족주의는 신뢰의 범위를 가족 내로 제한하고 가족 밖의 사람들에게는 강한 불신을 조장하는 반면, 미국과 독일과 같은 고신뢰 사회는 가족을 벗어나 일반적이고 자발적인 유대가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사회내의 높은 신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뉴튼(Newton, 1997)은 신뢰를 두터운 신뢰와 추상적 신뢰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신뢰(thick trust)라 한다면, 현대사회와 같이 보다 복잡하고 비인격적이며 분절화되어 있고,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에의 신뢰는 추상적 신뢰라 할 수 있다. 뉴튼은 이러한 추상적 신뢰는 주로 제도나 규율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의해서 확립된다고 주장한다. 즉, 각 사회에서의 신뢰의 정도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혁명적인 사회변화에서 두터운 신뢰가 얼마나 잘 추상적 신뢰로 대체되었는지에 관련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콜만(Coleman, 1998)은 자본을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한 후, 도구, 기계, 생산설비 등을 물리적 자본으로, 개인 안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인적 자본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신뢰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발현 되는 것이고 기타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규범, 신뢰라는 사회적 삶의 특징으로 구성된 것으로 참여자들로부터 공동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Putnam, 1995).

여기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신뢰는 우리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신뢰 즉,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자신의 중요한 타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추상적 신뢰인 것이다. 신뢰가 주관적이고 무형의 것이라 한다면, 네트워크는 객관적이고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사회적, 정치적 생활을 위하여 광범위한 개인적·사회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학연이나 지연 등의 우리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연결망과는 다르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주된 네트워크는 보다 비공식적이고 비위계적이며 약한 의무를 요구하는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Wuthnow, 1994). 혹자는 이를 연결망과 구별하여 연결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박찬웅, 2000), 연결망이 혈연, 학연, 지연 등과 같이 가입기준이 귀속적이거나 대상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데 반해, 연결망은 가입기준이 성취적이고 가입제한 또한 보편적이고 확장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추상적 신뢰와 폐쇄적인 연결망이 아닌 보편적인 연결망이 결합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2) 산업 클러스터의 사회적 자본

현대의 도시의 공간경제에 대한 연구는 도시경

제의 사회·문화적인 차원을 가장 중요시한다. 특히 경제활동의 사회·문화적 착근성(embeddedness)과 이로 인한 공간경제활동의 역동성이 도시의 경쟁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마샬(Marshall)의 산업집적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는, 경제사회학자 그래노베터(Granovetter, 1985)의 착근성개념을 기초로 하고, 정치학자 퍼트남(Putnam, 1993)과 사회학자 콜먼(Coleman, 1998)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즉, 신뢰, 협력, 연계망, 관습, 집합적 학습, 대가없는 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ndency) 등의 요소로 공간경제를 분석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산업 클러스터인 Silicon Valley의 경우, 이방인의 세계이며, 가족적 유대도 역사적 전통도 공동체의 형성도 매우 미약하다.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에 근거한 전략적 제휴와 연합, 파트너십, 경쟁과 협력의 구조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Cohen and Fields, 1999; Lee et al., 2000). 현대 산업경쟁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은 ‘윤리적 자원(moral resources)’도 ‘시민참여’도 ‘깊은 신뢰’ (Fukuyama, 1995; Putnam, 1993) 이기보다는 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의 원천이 되는 사회제도간의 생산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문화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은 소위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공동간의 신뢰나 묵시적 규약의 네트워크’이기보다는, 개인과 기업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사회제도의 생산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의 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의 확산과 지식의 학습을 통한 공생의 네트워크이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두터움이 성패를 좌우한다

고 할 수 있다. 산업 클러스터에서의 신뢰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동체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기보다는 보다 개방적인 경쟁력과 수행력을 통해 공고해 진다(Breschi and Lissoni, 2001; Desrochers, 2000; Porter, 1998b; Scott, 2000).

산업 클러스터의 문화경제의 발전과 확산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신뢰의 네트워크와 암묵적 규범,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발현되는 것이기보다는, '노하우, 장소지식, 특화 생산양식, 혁신, 프런티어 정신' 등의 암묵적 정보의 개방적 확산네트워크와 경쟁과 수행력에 의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Gertler, 1997; Sandefur and Laumann, 1998).

이처럼 도시 경제공간 발전에 사회적 자본이 중시되면서 산업 클러스터의 내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역사, 장소적 특성과 참여하는 경제주체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사회·문화경제 발전의 기제로서의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지, 세계적 연계망에 연결되어 국지적 집적에 의해 생산, 재생산되며, 둘째, 장소성에 바탕을 둔 산업생산의 혁신창출 능력에 의존하며, 셋째, 집적지의 산업간 상호 합

리적인 신뢰와 제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활동이 활발하며, 넷째, 생산-분배-소비가 네트워크화된 국지적 경쟁우위 창출하며, 도시의 역사가 오래되고 경제주체가 역동적일수록 산업 클러스터의 발달가능성이 풍부하다(Amin, 1999; Atherton, 2003; Bellandi, 2001; Carrie, 2000; Cooke and Wills, 1999; Maskell, 2001; Nadvi, 1999; Yi-Renko et al., 2001).

3) 우리나라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

산업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서울벤처밸리와 동대문시장을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전개되었다(김광선, 2000; 김양희·신용남, 2000; 이성곤·이우관·곽만순, 2002; 장승권, 2001; 진양교, 2001; 황주성, 2000). 그러나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에 핵심이 되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기업간, 기업과 지역간, 기업과 정부간의 착근성과 제도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도시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조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권영섭·허은영, 2000; 김선배, 2001; 박삼욱·남기범,

표 1. 산업 클러스터 내 사회적 자본의 특성

일반적인 사회적 자본	산업 클러스터 내 사회적 자본
· 커뮤니티의 발전과 통합의 근원, 성숙사회를 위한 성장기제	· 이방인의 사회, 약한 결속, 취약한 역사적 전통, 약한 커뮤니티 형성, 합리적 선택, 전략적 제휴, 연합, 경쟁과 협력
· 윤리적 자원, 시민참여, 깊은 신뢰	· 자원과 정보의 공유와 교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근원
· 성숙한 시민사회에 근거한 공통의 신뢰와 암묵적 규범의 네트워크	· 노하우, 장소지식, 특화 생산양식, 혁신, 프런티어 정신 등의 암묵적 지식의 확산 네트워크
· 폐쇄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과 수행력

2000; 이철우 외, 2000),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혁신 잠재력을 제고시키며 지속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산업 클러스터는 IT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성숙산업지역은 표준화된 기술, 혁신여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표 2 참조) 하지만 지역의 사회적 자본, 국지적 네트워크형성, 신뢰의 형성 등의 클러스터의 사회적 자본형성의 주요 요소는 산업의 지역밀착성이 오래된 성숙지역(mature industrial areas)에 오히려 더 풍부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산업 클러스터에서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중요한 것은 '산업부문'이기보다는, 국지적 집적의 경제적 이익을 장소에 기반을 두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제도화하는 경제주체들의 '사회·공간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대문 의류산업 집적지와 서울벤처벨리의 내적 발전특성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사회경제기제와 문화경제기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서울의 공간경제 발전에의 함의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서울벤처벨리와 동대문 의류산업집적지에 대한 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내적 역동성의 발현기제에 대해 고찰한다. 이 두 지역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행력에 바탕을 둔 산업 클러스터모형의 다양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자본의 변화와 제도화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표 2. 성숙산업지역과 첨단클러스터지역의 특성비교

구 분	전통적인 생산지역	새로운 학습지역
경쟁기반	자연자원과 물리적 노동에 기반한 비교 우위	지식의 창출과 끊임없는 개량에 기반한 지속 가능 우위
생산체제	대량생산 - 물리적 노동이 가치생산의 기반 - 혁신과 생산과정의 분리	지식기반에 기초한 생산 - 지속적인 창조 - 지식이 가치생산의 기반 - 혁신과 생산과정의 통합
산업의 하부구조	위계적이며 밀집된 수급 관계(예, 하청)	혁신지향적 기업 네트워크와 유기적 수급체계
인적 하부구조	저기술, 저비용 노동 기계적으로 구획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력 기계적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	지식소유, 다기능 노동 지적개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력 인간자원의 지속적인 향상,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물적 의사소통 하부구조	국내 지향적 물적 하부구조	초국경적 물적 의사소통 하부구조 전자정보의 교환망
산업관리 체제	대립적 관계 위계적인 조직관리 집중적, 규제적 통제	상호의존적 관계 네트워크적 조직관리 유연적 통제

Source : Florida, 1995, p.533

3. 동대문 의류산업집적지 발전의 사회적 자본과 제도화 특성

1) 동대문 의류산업집적지의 발전

동대문 의류산업 집적지는 비계획적 상가집적체(unplanned shopping clusters)로는 아마도 세계적 규모를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이며, 품목의 다양함과 도·소매 창고업을 아우르는 종적인 유통뿐만 아니라, 시장지역의 도달 범위가 서울은 물론, 전국, 나아가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르는 횡적 유통영역이 무척 광대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도심부 영세 제조업과 이를 중심으로 한 중층적 하청·연계구조에 얽힌 다양한 제조업 기능과 유통기능이 동일한 공간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동대문 의류산업 집적지는 이러한 ‘세계적인’ 위상과 동시에 문제도 안고 있다. 이 지역에 도심 혹은 도심 주변(CBD Frame)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구조적으로 진화하지 못하여 기능적, 물리적, 심미적으로 부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도시(inner city)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산업경영연구원, 1986). 상가의 역사가 50년 이상이 되어 건물이 낡고, 퇴락하고, 고밀도로 밀집되어 있어 화재와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도심의 주요한 간선도로인 청계천로가 이미 절반 정도 길이 좁아진데다가, 막대한 교통수요의 발생, 나아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불법주차 문제는 심각한 교통혼잡과 환경폐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대의 대도시는 광역적, 다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처럼 도시주변에 교통수요와 인구유입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는 기능은 과감히 도시외곽이나 시계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²⁾

하지만 동대문지역은 현대식 상가가 계속 형성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판매 등 상품차별화, 비교적 여유 있는 주차장여건으로 인해 이미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접한 원자재 및 봉제업체와 유기적인 장소-기능적 연관을 맺고 있으며 소비자 원하는 상품을 가장 단시간 내에 제공할 수 있는(customized production & distribution) 국내 유일의 장소로서 역할하고 있다. 약 30,000개의 무수히 전문화된 소규모 기업들이 의류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단순화된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각 생산단계 마다 필요한 서비스는 중개인을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유연적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2) 동대문 의류산업집적지의 발전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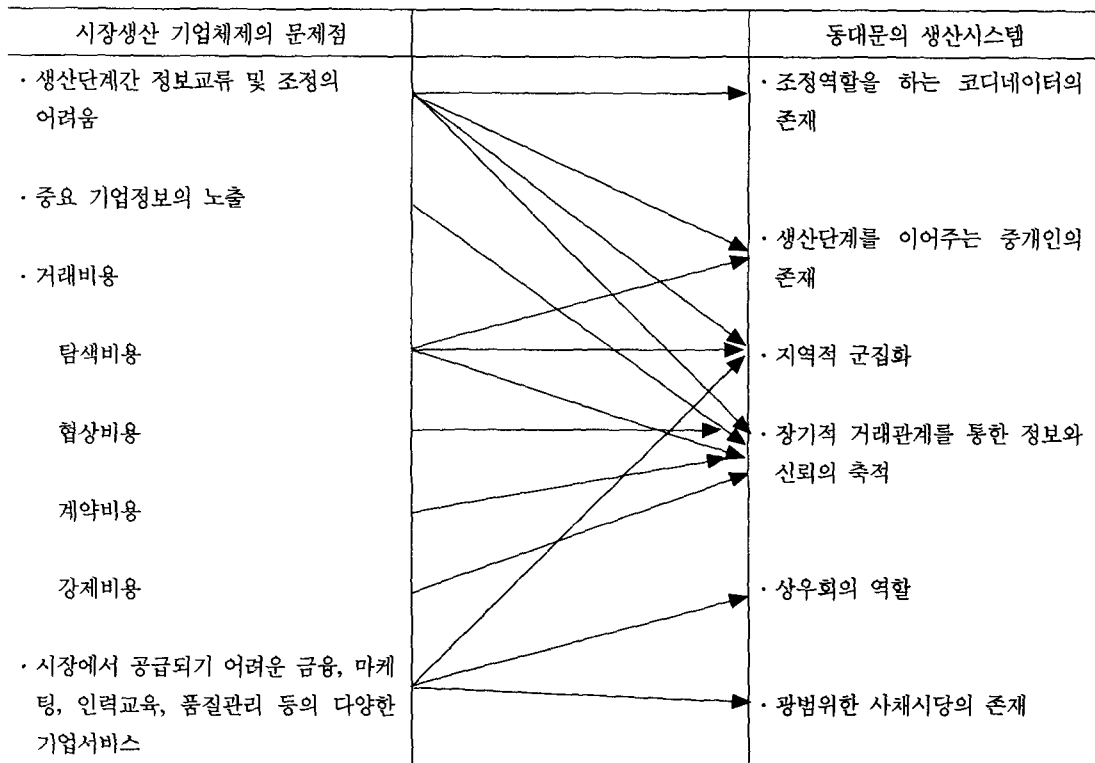
동대문 의류산업 집적지의 발전과정은 전형적으로 장인산업 시스템의 확대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업체에서 숙련되고 기술력이 뛰어난 고용자들이 인접한 곳에 창업과 분사를 하여 새로운 업체를 구성하고, 이들은 뉴욕의 보석상인들처럼 신뢰, 협력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수평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의류도매업, 프로모션, 봉제공장, 의류 부자재업, 위탁가공업 등의 중층적 거래관계자 사이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대기업의 부서간 관계나 수직적 하청기업과의 관계가 소유와 비대칭적인 협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직적 네트워크라면, 동대문 의류산업 집적지는 신뢰와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향상, 지식전달과 확산의 과정을 통해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한 유연적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동대

문 의류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유연성(flexibility)이다. 스타일과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는 파편화된 소비자기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응하며 틈새시장 공략, 매우 짧은 상품수명주기, 짧고 다양한 분배체제와 분배시간, 끊임없는 생산혁신,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 주문 생산에 빠른 대응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규모 전문기업가, 기업주는 대부분 매우 젊고(20대, 30대) 활동적임,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생존을 위한 경쟁, 정보, 노하우, 지식확산을 위한 비공식적 연계

- 네트워킹(networking): 범위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측면에서 유리함, 집적지 내에서 기획, 디자인, 생산, 판매를 위한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킹, 소비자의 기호와 반응에 대한 빠른 응답시스템 존재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오랜 역사와 장소성에 근거한 신뢰, 협동, 협력, 상호 의존적인 커뮤니티 형성, 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한 유연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착근성 형성
- 사회 경제적 메커니즘: 일, 여가, 소비가 혼합된 공간, 신뢰에 기반한 기획, 생산, 분배의 수직적 네트워크(vertical networking), 지속적이고 도시지역의 전통적인 이미지로부터 업

표 3. 동대문 의류산업 클러스터의 생산시스템의 특성



출처 : 이성근 · 이우관 · 곽만순, 2002, p.123

그레이트 된 공간 창출(place-making)

동대문 의류산업 집적지는 이러한 발전기제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인 시장생산 기업체의 많은 단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각 생산단계간 정보교류 및 조정이 매우 용이하며,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인 신뢰와 지분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정보의 유출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 또한 산업 클러스터형성에 중요한 탐색비용, 협상비용, 계약비용, 강제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현격하게 축소시키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소기업의 여건상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금융, 마케팅, 인력교육, 품질관리 등의 다양한 기업서비스를 상우회 활동을 통해 상당부분 제공받고 있다(이성곤·이우관·곽만순, 2002).

4. 서울벤처밸리 발전의 사회적 자본과 제도화 특성

1970년대 강남개발을 필두로 시작된 강남·서초 지역은 1990년대 사무업무활동과 중산층 거주지, 우수한 교육환경 및 여가활동환경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급속히 첨단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한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서초역까지의 테헤란로 약 1.7km 구간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업체의 절반가량과 수많은 인터넷 산업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서비스활동이 입지하여 '테헤란밸리'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서울벤처밸리지역이다.

개발의 초기에는 주로 금융기관이 집중해 있던 서울벤처밸리지역이 정보통신 메카로 탈바꿈한 계기는 1997년 IMF 쇼크로 인해 건물 임대료가

폭락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사무실을 임대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빌딩이 최근에 지어진 인텔리전트 빌딩이어서 통신시설이 잘 구비되었으며, 테헤란로를 따라 지하에 매설된 광통신망은 IT업계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특히 강남역 부근에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특허청,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각종 민·관 단체들과 창투사 등의 벤처센터들이 입지하면서 비즈니스 서비스의 접근성이 빠르게 증대하였다.

서울벤처밸리지역은 이처럼 편리한 하부구조를 활용한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통한 기업간의 공동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험자본 등 자금공급부문 뿐만 아니라, 법무, 회계 등의 전문자문 서비스와 경영컨설팅, 마케팅, 광고업 등과 같은 경영지원 서비스업이 집적해 있어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 벤처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상당히 우수하다(강남구, 2002: 180). 또한 인접한 곳에 중산층 거주지, 우수한 교육환경 및 여가활동환경 등이 조성되어 있어 우수한 인력의 충원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벤처밸리지역의 기업들은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창출하는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공동학습과 전략적 제휴, 연합, 경쟁과 협력 등의 주요 의사결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표 4 참조). 특히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 즉, 고객, 공급기업, 투자자와의 공식적 네트워크와 함께 휴먼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 모임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과 수행력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지역 내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비교적 미흡하며, 국제적인 혁신 네트워크 형성도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기

표 4. 서울벤처밸리의 비공식적 모임

명 칭	특 성
e비즈니스 클럽	PSI넷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중견인터넷 기업과 창투사 사장들의 모임. 신생 벤처기업 지원, 핵심사안에 대한 스터디 등
IB 리그	e-코퍼레이션 등 인터넷 비즈니스 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 투자가와 사업가가 모여 전략적 제휴, 공동 마케팅의 논의 등.
시작	인터넷관련 주요 비즈니스 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 (주)시작컴 법인 설립, 브리지 사이트인 www.sijag.com 출범 등.
SI 모임	현대정보기술, 삼성 SDS, LG-EDS 등 SI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
NCC(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즈 클럽)	핸디소프트, 나눔기술, 퓨처시스템 등 벤처 1세대 기업의 홍보, 마케팅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
이브	벤처자본사 사장과 관련 학과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
벤처리더스 클럽	휴맥스, 새롬기술 등 벤처기업과 학계, 언론계, 관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
미래모임	안철수연구소 등 벤처업계, 학계 등의 회원을 중심으로 한 조찬모임
i-파트너십	한솔그룹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인터넷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임.

출처 : 노창숙, 2000; 이병민, 2001

술의 고착효과(lock-in effect)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강남구, 2002: 179).

비록 본격적인 소프트웨어산업, 인터넷 산업, 벤처산업의 발전역사는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울벤처밸리지역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드문 자연발생적인(spontaneous) 산업 클러스터지역이며, 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 상호의존의 파트너십이 비교적 잘 제도화되어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 등의 유연한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5. 토의 및 결론: 두 지역의 비교

서울벤처밸리지역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모험자본, 엔젤자본 등 과

풍부한 비즈니스 하부구조의 지원을 받아 형성된 IT, 인터넷, 소프트웨어산업이 군집한 클러스터이다. 반면, 동대문 의류산업집적지는 주로 개인자본으로 시작하며, 중급기술에 의존하여 전문화된 소규모 기업들이 의류의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단순화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각 생산단계 마다 필요한 서비스는 중개인을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동대문지역은 도심외곽지역이라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퇴락과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지역이다.

서울벤처밸리지역은 IT산업을 기반으로 자연 발생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했으며, 1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무업무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첨단 벤처산업지구가 되었다. 이에 반하여 주로 중개상(intermediaries)을 기반

표 5. 동대문 의류산업 집적지와 서울벤처밸리의 특성비교

	청계천 의류산업 집적지	서울벤처밸리
핵심산업	패션, 의복, 의류 - 디자인, 기획, 생산, 판매	IT, 인터넷, 소프트웨어 - R&D, 생산, 마케팅
지 식	기존 기업주의 노하우와 장소지식	연구소, 실험실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노동력	상인과 중소기업의 노동력	연구소와 기업의 기술적 노동력
자 본	개인자본	엔젤자본, 벤처자본
기업조직	개인회사	벤처회사
네트워킹	자급자족·국제적 판매	R&D, 생산, 마케팅의 국제 네트워킹

표 6. 동대문 의류산업 집적지와 서울벤처밸리의 사회적 자본의 유사점과 차이점

	서울벤처밸리	동대문 의류산업집적지
장소성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 주로 사무업무활동 지구, IT중심의 벤처산업지구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에서 출발하여 생산-유통-판매-사후 서비스가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짐.
사회경제적 기제	신뢰, 협력, 상호의존 파트너십	신뢰, 협력, 상호의존 커뮤니티
문화경제적 기제	암묵지의 비공식적 횡적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기존 전통도시공간과의 단절을 통한 집적지 이미지와 성격창출	노동과 여가와 소비공간의 융합, 효율적인 기획 생산판매의 종적 네트워크, 기존 전통도시공간과의 연속과 재개발을 통한 집적지 이미지와 특성
수행력	연구개발의 국제성, 인력충원의 착근성, 국가적 필요에 의한 제도화로 수행력 향상	자기완결적 국지적 네트워크, 유통-판매의 국제적 네트워킹시작, 국지적 요구에 의한 제도화로 수행력 향상

으로 성장한 동대문 지역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에서 출발하여 생산-유통-판매-사후 서비스가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서울벤처밸리지역 발전의 사회경제적 기제는 주로 신뢰, 협력, 상호의존의 파트너십에 뿌리를 두고 있고, 문화경제적 기제는 주로 암묵지의 비공식적 횡적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되며, 기존 전통도시공간과의 단절을 통한 집적지 이미지와 성격을 창출하고 있다. 동대문지역 발전의 사회경제적 기제는 신뢰, 협력, 상호의존의 커뮤니티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경제적 기제는 노동과 여가와 소비공간의 융합, 효율적인 기획

생산판매의 종적 네트워크, 기존 전통도시공간과의 연속과 재개발을 통한 군집적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외곽 지역의 전통적 이미지로부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인한 공간이미지 창출과 함께 기획, 생산, 분배의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벤처밸리지역의 수행력은 연구개발의 국제성, 인력충원의 착근성, 국가적 필요에 의한 제도화로 상당히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동대문지역은 주로 자기 완결적인 국지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통-판매의 국제적 네트워킹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결국 동대문지역은 국지

적 요구에 의한 제도화로 인해 수행력이 향상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일반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산업 클러스터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그 형성의 논리와 발전기제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에 따라서도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화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발현된다. 서울의 경우, 밀집된 소비인구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소비자지향형 산업집적지인 동대문 지역과 IT산업중심의 첨단고부가가치 지향형 산업집적지인 서울벤처벨리의 장소성, 사회경제적 기제, 문화경제적 기제, 수행력 등 집적지형성논리와 사회적 자본의 특성, 기업간 수평·수직적인 네트워크형성의 제도적 특성과 관습의 정착에는 상당한 유사성과 더불어 차이점이 발견된다. 더욱이 이 두 지역이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이고 이들을 벤치마킹하는 산업공간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볼 때, 산업 클러스터의 사회적 자본형성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지원정책과 입지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주

- 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논의는 김우택·김지희(2002), 유석춘(2003), 이재열(1998), Adler and Kwon(2001), Coleman(1990), Fukuyama(1995), Putnam(1993) 등을 참조하고, 산업클러스터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남기범(2002), Bebbington and Perreault(1999), Cooke and Wills(1999), Gertler(1995; 1997) 등을 참조하시오.
- 2) 동대문 의류산업집적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이제는 집적의 이익(the advantages of co-location)을 상실하고, 재래화, 영세화로 기

능의 약화와 상실의 우려가 있다; 2) 도소매·창고·제조기능이 혼재하여 도심으로의 과도한 물류, 교통발생을 초래한다; 3) 상적(商的) 유통과 물적(物的)유통이 공간적으로 혼재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생산성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4) 상업활동의 광역화·교외화로 외곽에 세워진 현대식 쇼핑센터와 전문상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5)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더 나은 기능이 위치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을 제약하여 높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강남구, 2002, 테헤란벨리의 벤처생태계분석 및 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남구.

구승희(역), 1998,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권영섭·허은영, 2000, 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권오혁(편), 2002, 첨단산업과 도시, 한울.

김광선, 2000, 동대문시장지역의 학습지역화에 관한 연구: 패션의류산업 집적지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석용, 1996, "신제도학적 기업이론과 기업간 네트워크이론의 고찰," 경영학연구 25(1), pp.107-152.

김선배, 2001,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모형," 지역연구 17(2), pp.79-97.

김양희·신용남, 2000, 재래시장에서 패션네트워크로, 삼성경제연구소.

김우택·김지희(편), 2002,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 한림과학총서 88), 소화.

남기범, 2001, "문화산업의 집적화와 시너지효과에 대한 시론," 남기범 외,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삼우사.

- 남기범, 2002, “테헤란밸리와 동대문 시장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비교,” 한국지역학회 2002년 전가 학술대회 및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발전 세미나, 2002년 7월 5일~6일, 영남대학교(경산캠퍼스) 국제관 메이플홀.
- 노창숙, 2000, “휴먼네트워크가 힘이다,” 정보화로 가는 길 36.
- 박삼욱·남기범, 2000,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및 산업지구 개발방향,” 국토계획 35(3), pp.121-140.
- 박찬용, 2000, “사회적 자본, 신뢰, 시장,” 한국사회학회(편), 21세기 시장과 한국사회, 나남, pp.143-185.
- 복득규 외, 2003, 클러스터: 한국 산업과 지역의 생존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안청시(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 서울, 박영사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유석춘 외(역), 2003, 사회적 자본, 그린.
- 이덕희, 2000, “패션·어패럴밸리 조성방안,” 밀라노 프로젝트 대토론회, 산업연구원.
- 이병민, 2001,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 기업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곤·이우관·곽만순, 2002, 동대문시장 성공의 경제학, 이슈투데이.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1998년 여름호.
- 이철우·박양춘·김은정, 2000,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와 생산체계의 재구조화,” 대한지리학회지 35(2), pp.207-225.
- 장승권, 2001, “혁신공간으로서의 클러스터에 관한 분석: 동대문 패션클러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15(2), pp.121-145.
- 진양교, 2001, “서편체신화의 이면: 동대문시장의 공간 르포,” 이상건축 106, pp.145-148.
- 한국산업경영연구원, 1986, 도심 부적격기능 및 시설 재정비계획의 구상, 서울.
- 황주성, 2000, “소프트웨어 산업의 입지와 산업지구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5(1), pp.121-140.
- Adler, S. and Kwon, Seok-Woo, 2001,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pp.17-40.
- Altenburg, T. and Meyer-Stamer, J., 1999, “How to promote clusters: policy experiences from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27, pp.1693-1714.
- Amin, A., 1999, “The Emilian model: institutional changes,” *European Planning Studies* 7(4), pp. 389-405.
- Asheim, B. T. and Isaksen, A., 2002,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integration of local ‘sticky’ and global ‘ubiquitous’ knowledg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27, pp.77-86.
- Atherton, A., 2003, “Examining clusters formation from the ‘bottom-up’: an analysis of four cases in the North of Eng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1, pp.21-35.
- Bebbington, A. and Perreault, 1999,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access to resources in Highland Ecuador,” *Economic Geography* 75 (4), pp.395-418.
- Bellandi, M., 2001, “Local development and embedded large firm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3, pp.189-210.
- Bouwman, H. and Hulsink, W., 2002, “A dynamic model of cyber-entrepreneurship and cluster formation: ap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low countries,” *Telematics and Informatics* 19, pp.291-313.
- Breschi, S. and Lissoni, F., 2001, “Localised knowledge spillovers vs. innovative milieu: knowledge ‘tacitness’ reconsidered,” *Papers Regional*

- Science* 80, pp.255-273.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Green Wood Press.
- Carrie, A. S., 2000, "From integrated enterprises to regional clusters: the changing basis of competition," *Computers in Industry* 42, pp. 289-298.
- Cohen, S. and Fields, G., 1999, "Social Capital Gains in Silicon Valle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1(2), pp.108-130.
- Coleman, J., 199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S94-120.
- Cooke, P., 2001,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lusters, and the knowledge econom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0(4), pp.945-974.
- Cooke, P., Uranga, M. G. and Exebarria, G., 1998, "Regional system of innov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pp.1563-1584.
- Cooke, P. and Wills, D., 1999, "Small firms, social capital and the enhanc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innovation programmes," *Small Business Economics* 13, pp.219-234.
- Desrochers, P., 2001,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transmission of tacit knowledge,"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4(1), pp.25-46.
- Doeringer, P. B. and Terkla, D. G., 1995, "Business strategy and cross-industry cluster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9, pp.225-237.
- Florida, R., 1995, "Toward the learning region," *Futures* 27(5), pp.528-553.
- Gertler, M., 1995, "'Being there': proximity, organization and culture in the production and use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 *Economic Geography* 71, pp.1-26.
- Gertler, M., 1997, "The invention of regional culture," in Lee, R. and Wills, J.(eds.), *Geographies of Economies*, London, Edward Arnold, pp.53-64.
- Gertler, M. S., 2003, "Tacit knowledge and the economic geography of context, or the undefinable tacitness of being (there),"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3(1), pp.75-99.
- Gordon, I. and McCann, P., 2000, "Industrial clusters: complexes, agglomeration and/or social networks?" *Urban Studies* 37(3), pp.513-532.
-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pp.481-510.
- Lee, C.-M., Miller, W. F., Hancock, M. G. and Rowen, H. S., 2000, *The Silicon Valley Edge: A Habitat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 Kongrae, 2003, "Promoting innovative clusters through the regional research centre (RRC) policy programme in Korea," *European Planning Studies* 11(1), pp.54-87.
- Lagendijk, A. and Cornford, J., 2000, "Regional institutions and knowledge - tracking new form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Geoforum* 31, pp.209-218.
- Markusen, A., 1996, "Sticky places in slippery space: a typology of industrial districts," *Economic Geography* 72, pp.293-313.
- Martin, R. and Sunley, P., 2003, "Deconstructing clusters: chaotic concept or policy panace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3(1), pp.5-35.
- Maskell, P., 2001, "Towards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geographical cluster,"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0(4), pp.921-943.

- Nadvi, K. 1999, "Shifting ties: social networks in the surgical instrument cluster of Sialkot, Pakistan," *Development and Change* 30, pp. 141-175.
- Nahm, Kee-Bom, 2001, "Emerging new industrial cluster along the Cheonggyecheon-ro and its social capital,"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pp. 79-96.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pp.575-586.
- Park, S. O., 1996, "Networks and embeddedness in the dynamic types of new industrial district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4), pp.476-493.
- Park, S. O. and Markusen, A., 1995, "Generalizing new industrial districts: a theoretical agenda and an application from a non-Western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7, pp.81-104.
- Porter, M., 1998a, "The Adam Smith address: location, clusters, and the 'new' microeconomics of competition," *Business Economics* 33(1), pp.7-13.
- Porter, M., 1998b, "Clusters and the new economie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pp.77-90.
- Porter, M., 2001, "Clusters of innovation: regional foundations of US competitivenes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lusters of Innovation Meeting, Washington D.C., Dec. 13, 2001.
- Rabellotti, R. and Schmitz, H., 1999, "The internal heterogeneity of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Brazil and Mexico," *Regional Studies* 33(2), pp.97-108.
- Saxenian, A., 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andefur R. and Laumann, E. O., 1998, "A paradigm for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10(4), pp.481-501.
- Scott, A., 2000, *The Cultural Economy of Cities*, London, Sage.
- Simmie, J. et al., 2002, "Innovation in Europe: a tale of networks, knowledge and trade in five cities," *Regional Studies* 36(1), pp.47-64.
- Smith, H. L., 2001,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power relations in local high-tech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Oxfordshire," Working Paper 01-03, Centre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Coventry University.
- Thrift, N., 2000, "Pandora's box? cultural geographies of economies," in Clark, G.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689-704.
- Van Klink, A. and De Langen, P., 2000, "Cycles in industrial clusters: the cas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Northern Netherlands," *TESG* 92(1), pp.449-463.
- Wuthnow, R., 1994. *Sharing the Journey: Support Groups and America's New Quest for Community*, New York, Free Press.
- Yli-Renko, H. et al., 2001, "Social capital, knowledge acquisition, and knowledge exploitation in young technology-based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pp.587-613.
- <http://www.dongdaemun.com>
- <http://www.dongta.com>

**Dual Clusters of the Metropolitan Regi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Spatial Agglomeration,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Dongdaemun Market and
Seoul Venture Valley in Seoul, Korea***

Kee-Bom Nah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The University of Seoul
(nahm@uos.ac.kr)*

Abstract : As the proc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deepens market uncertainty and severe competition, modern companies are tend to rely on non-market, socio-economic mechanisms such as trust, collaboration, and interdependence. They are being more influenced by cultural-economic mechanisms like networks, embeddedness, and placeness rather than explicit cost-reduc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lusters,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by comparing two distinctive types of clusters, say Teheran and East-Gate Valleys in Seoul, Korea. The one is mainly consisted of IT industries with increasing vertical integration supported by venture capitals and favorable business infrastructures. The other cluster has long been a traditional CBD frame of Seoul and has transformed to the most dynamic and productive area, characterized by one-stop 'R&D-production-distribution-consumption-after sales services'. The study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and key characteristics for these kinds of clusters can give us insight for the cluster theory. This paper firstly review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capital in general and that of industrial clusters. It then profiles the growth of the two clusters over the past decade, and compares the current spatial and business structure of the two clusters, focusing on transactions costs, the creation and flow of information, and the local institutions.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comments about the prospects and perils of the two types industrial clusters of Seoul.

Key Words : Industrial clusters, Dongdaemun Market, Seoul Venture Valley, Social capital, Institutionaliz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1-041-C00661)